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9, pp.165-200  
<https://doi.org/10.29212/mh.2021..119.16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공화정기 로마군 공성전의 시기별 특징\*

배은숙\*\*

1. 머리말
2. 기원전 6-3세기 공성전의 형태 및 특징
3. 기원전 2-1세기 공성전의 형태 및 특징
4. 맺음말

## 1. 머리말

로마의 영토는 공화정기에 매우 증가했다. 기원전 495년경 로마의 영토는 350평방마일(906.5km<sup>2</sup>)이었으나 기원전 396년 베이이(Veii) 점령으로 620평방마일(1605.8km<sup>2</sup>)로 약 1.8배 증가했다. 기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8771).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조교수(jejs@kmu.ac.kr)

전 4세기 동안에도 에트루리아의 도시들은 로마와 간헐적으로 전쟁했으나 승리하지 못했고, 이후 점점 로마 영토에 편입되었다.

기원전 494년경부터 로마 중남부의 볼스키인(Volschi)과 아이퀴인(Aequi)이 거의 매년 로마와 라틴 도시들을 공격했고, 이후 50년 동안 간헐적으로 전쟁했다. 기원전 5세기 말 볼스키인과 아이퀴인은 로마에 쫓겨 이탈리아 서부 고지로 물러난 후 점차 사멸했다. 기동력을 갖춘 적은 아페닌 산맥에 거주하는 삼니움(Samnum)인이었다. 기원전 343년 삼니움인이 로마와 캄파니아 사이에 있는 카푸아(Capua)를 위협했다. 카푸아인은 로마에 구원을 요청했고, 로마가 이를 받아들여 간섭함으로써 제1차 삼니움 전쟁(기원전 343-341년)이 촉발되었다. 제2차 삼니움 전쟁(기원전 327-304년)은 로마가 나폴리(Napoli)를 병합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제3차 삼니움 전쟁(기원전 298-290년)은 로마가 이탈리아 남부의 루카니아(Lucania)를 정복한 일이 빌미가 되어 일어났다. 삼니움 전쟁으로 로마의 영토는 이탈리아반도 중남부 지역까지 확대되었다.<sup>1)</sup>

로마가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하게 된 계기는 ‘피루스(Pyrrhus) 전쟁’(기원전 280-275년)이었다. 갈등의 씨앗은 반도 남부의 타렌툼(Tarentum)이었다. 타렌툼은 투리아에 있는 로마군을 공격하는 동시에 그리스 지역의 에피루스(Epirus) 왕인 피루스에게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피루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피루스 전쟁 결과 타렌툼은 로마의 동맹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탈리아반도 전체가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다.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 개의 대륙을 장악하게 된 계기는 ‘포에니 전쟁(Punic War)’이었다. 시칠리아(Sicilia)섬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카르타고와 로마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이것이 제1차 포

1) L. H. Dyck, *The Roman Barbarian Wars: The Era of Roman Conquest*, Barnsley: Pen & Sword Books, 2016, 24-158.

에니 전쟁(기원전 264-241년)이 발발한 계기였다. 제2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18-201년)은 로마가 동부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니발(Hannibal Barca)을 지원하면서 그리스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케도니아(Macedonia)의 필리포스 5세(Philippos V)를 저지하기 위해 로마는 출병했다. 패배한 필리포스는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포기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로마의 다음 전쟁 상대는 북부 아프리카 누미디아(Numidia)의 유구르타(Jugurtha)였다. ‘유구르타 전쟁’(기원전 111-104년)은 유구르타를 생포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유구르타 전쟁이 종결되자, 로마는 게르만족인 킴브리인(Cimbri)과 테우토네스인(Teutones)에 대한 전쟁에 매진할 수 있었다. 기원전 1세기 초 로마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세력은 소아시아 북동부에 있는 폰투스(Pontus)의 미트리다테스 6세(Mithridates VI) 왕이었다. 팽창주의 정책을 추구했던 그는 로마의 공격으로 점령한 지역을 포기하고, 조공을 바치며, 포로를 석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폰투스 왕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는 제2차 미트리다테스 전쟁(기원전 83-81년)과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기원전 75-63년)을 일으킨 후 자살했다.

기원전 1세기 중반 로마는 ‘갈리아 전쟁’(기원전 58-51년)에 매진했다. 이 전쟁은 스위스 지역에 거주하던 헬베티인(Helvetii)이 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더 비옥한 지역으로 대량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카이사르(Julius Caesar)는 게르만족과 갈리아 북부에 있던 벨가이인(Belgae)에 대항하여 전투했다. 기원전 54-53년 동안 네르비인(Vervii), 트레베리인(Treveri), 에부로네스인(Eburones)과 연이어 전투했다. 기원전 52년 아르네르니인(Arverni)의 지도자인 베르킨게토릭스(Vercingetorix)를 생포함으로써 갈리아를 정복하게 되었고, 이 지역은 로마에 병력을 공급하는 주요한 원

천이 되었다.<sup>2)</sup>

기원전 1세기 후반의 전쟁은 내전이 주류를 이루었다. 경쟁의 양측은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와 옥타비아누스(Gaius Octavianus)였다. 이들 두 사람은 기원전 42년 필리피(Philippi) 전투에서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에 대해 승리했지만, 이들의 경쟁으로 내전은 계속되었다. 마리우스(Gaius Marius) 때부터 지속한 내전은 기원전 31년 그리스 북서부 해안에서 벌어진 악티움(Actium)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종결되었다.

이러한 공화정기의 팽창과정은 적의 성곽을 공격하는 공성전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트루리아의 베이이 점령부터 안토니우스와의 페루시아(Perusia) 점령까지 지속된 것이 공성전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로마의 대표적인 공성전으로 꼽는 것은 기원전 134-133년의 누만티아 전투, 기원전 52년의 알레시아(Alesia) 전투, 기원전 41-40년의 페루시아 전투이다. 이유는 기원전 2-1세기에 로마의 영토가 명실상부하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세 대륙으로 넓혀지게 되었고, 이들 전투에서 로마의 정교한 포위망 전술이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코넨리(P. Connolly)와 캠벨(B. Campbell)은 “누만티아 전투는 로마 공성전의 전형”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스키피오(Scipio Aemilianus)와 카이사르 모두 조밀한 포위망이라는 유사한 전술을 구사했고, 이 전술은 누만티아와 알레시아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sup>3)</sup> 로스(J. P. Roth)도 누만티아에 이은 “알레시아 포위망은 로마 공성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모든 공성전은 이러

2) M. Feugere, *Weapons of the Romans*, Stroud: Tempus, 2002, 1-86; C. S. Mackay, *Ancient Rome: A Military and Politic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3-176; J. Penrose, ed., *Rome and her Enemies*, Oxford: Osprey Publishing, 2008, 15-76.

3) P. Connolly, *Greece and Rome at War*, London: Macdonald, 1981, 168-295; B. Campbell, *Siege Warfare in the Roman World 146 BC-AD 378*, Oxford: Osprey Publishing, 2005, 22.

한 포위망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sup>4)</sup>라고 주장했다. 누만티아와 갈리아 전쟁의 경험은 페루시아 전투에서도 적용되었다. 누만티아 전투에서 보여준 포위망 전술이 로마 공성전 전술의 전형이 되었다는 것이 이들 학자의 견해이다.<sup>5)</sup>

데이비스(G. Davies)는 누만티아와 알레시아의 포위망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보았다. 두 전투에서는 적으로부터 아군을 방어하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물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정교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정교한 포위망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sup>6)</sup> 포위망 전술이 예외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두 전투에서 구축된 포위망의 구조가 예외적으로 정밀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 역시 포위망 전술이 로마 공성전에서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누만티아, 알레시아, 페루시아 전투에서 포위망 전술이 로마군의 주된 전술이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다른 시기와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들 전투 이전이나 이후의 시기와 비교하여 기원전 2-1세기에 포위망 전술의 사용 빈도가 높을 때 이를 주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화정기에 로마가 치른 총 167번의 공성전에서 포위망 전술과 직접적인 공격의 빈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기원전 6-3세기의 공성전과 기원전 2-1세기의 공성전으로 나누어 누만티아, 알레시아, 페루시아 전투의 전술적 특

- 
- 4) J. P. Roth,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264 B.C. -A.D. 235)*, Leiden: Brill, 1999, 310-320; G. Webster,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426-452; A. K. Goldsworthy, *Roman Warfare*, New York: Basic Books, 2019, 80-99.
- 5) L. L. Brice, *Warfare in the Roman Republic: From the Etruscan Wars to the Battle of Actium*, Santa Barbara: ABC-CLIO, 2014, 42-49; Kromayer, J. & Veith, G., eds., *Heerwesen und Kriegführung der Griechen und Römer*,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28, 254-469.
- 6) G. Davies, *Roman Siege Works*, Stroud: Tempus, 2006, 74-75, 133-134.

정을 추출하고자 한다. 공화정기의 시기별 공성전의 전술적 특징이 분석되어야 제정기와의 연관성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공화정 후기와 제정기 포위망 구축의 관행이 확고해졌다.”거나 “제정기 공성 방법은 카이사르 시기와 동일하다.”<sup>7)</sup>라는 주장들은 공화정기의 공성전은 포위망 전술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것이 제정기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 2. 기원전 6-3세기 공성전의 형태 및 특징

기원전 6세기 초 세르비우스(Servius Tullius) 왕의 치세 때 로마 군단에서 2개 백인대는 무기 없이 공성전을 위한 작업을 하는 임무를 맡았다.<sup>8)</sup> 이들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공화정 후기의 공성전에서 흔히 보이는 공성 기계들(*machinae*) 이 이때 이미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기원전 502년 카메리아(Cameria) 전투와 기원전 493년 코리올리(Corioli) 전투에서 파성퇴(*arietes*, *krioi*)와 사다리(*scala*)를 사용해서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9)</sup> 하지만 디오도루스(Diodorus Siculus)는 기원전 440년 사모스(Samos)에서 파성퇴의 램을 처음 만들었다고 했다. 또 기원전 377년의 투스쿨룸(Tusculum) 전투와 기원전 293년 아퀼로니아(Aquilonia) 전투에서 사다리로 올라가거나 돌을 던져 성문을 파괴

---

7) J. Levithan, *Roman Siege Warfare*, Ann Arbor: The University Michigan Press, 2013, 63-65; K. Nossov,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 a fully illustrated guide to siege weapons and tactics*, Connecticut: The Lyons Press, 2005, 48-49.

8) Livius, *Ab Urbe Condita* 1.43.3.

9) Dionysius of Halicarnassus, *Antiquitates Romanae* 5.49, 6.92; Livius, *Ab Urbe Condita* 2.33.

했다.<sup>10)</sup> 이를 볼 때 기원전 6세기 초에 파성퇴가 사용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거나 통나무로 성문을 치는 단순한 형태의 공성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포위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기원전 494년의 벨리트라이(Velitrae) 전투에서였다. 로마군 지휘관인 마르키우스(Ancus Marcius)는 볼스키인의 도시 벨리트라이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해자와 말뚝으로 도시를 둘러싼 후 성벽을 공격하고자 했다. 기원전 459년의 안티움(Antium) 전투에서도 로마군 지휘관인 코르넬리우스(Lucius Cornelius)는 성벽 둘레에 해자를 파고, 말뚝을 세워 주민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로마군을 공격하자 코르넬리우스군은 사다리를 대고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도시를 점령, 약탈했다. 기원전 435년의 피데나이(Fidenae) 전투와 기원전 418년의 라비키(Labici) 전투도 말뚝으로 도시를 에워싼 후 사다리로 공격했다.<sup>11)</sup> 이들 사례에서 볼 때 기원전 5세기 포위망을 구축한 것은 성벽을 직접 공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포위망 구축과 성벽 공격이 일률적으로 사용된 전술은 아니었다. 피데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이 도시 포위, 사다리 공격, 기근 유도 등의 전술 후에 사용한 것은 땅굴(*cuniculus*) 건설이었다. 로마는 비교적 경비가 허약한 지역에 땅굴을 파서 적의 성채를 장악했다. 이 전술은 10년에 걸쳐 지속된 베이이 전투를 종결지은 전술이었다. 베이이 전투는 로마가 처음으로 겨울에도 적지에 있었던 전쟁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종결짓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겨울에도 전쟁하면서 겨울 주둔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병사들에게 봉급을 지급했다. 로마의 지휘관인 카

10)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13.7; Livius, *Ab Urbe Condita* 6.33, 10.41-42, 10.44.

11) Dionysius of Halicarnassus, *Antiquitates Romanae* 3.41, 10.21; Livius, *Ab Urbe Condita* 4.22, 4.47;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13.7.

밀루스(Marcus Furius Camillus)는 성벽 안으로 통하는 땅굴을 파서 일부 병사들을 보내 성문을 개방했다. 지하를 활용한 새로운 공성 전술에서 사전 작업으로 사용된 것이 포위망 구축이었다. 카밀루스는 베이이의 동맹국들을 격퇴한 후 도시 주변에 더 많은 진영을 건설했는데, 이것이 적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선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기원전 5세기 후반에 등장한 땅굴 전술 또한 직접 성벽을 공략하기 위한 공격전의 일환이었다.

기원전 6-5세기 공성전에서 사용된 전술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원전 6-5세기 사용된 전술

전투 명	사 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510년 아르테아	Livius, 1.57; Zonaras, 7.11	○								
기원전 502년 포메티아	Livius, 2.17		○							
기원전 502년 카메리아	Dionysius, 5.49					○		○		
기원전 494년 벨리트라이	Livius, 4.22-47				○	○				
기원전 493년 코리올리	Dionysius, 6.92; Livius, 2.33					○		○		
기원전 459년 안티움	Dionysius, 10.21				○	○		○		
기원전 435년 피데나이	Livius, 4.22; Florus, 1.6				○				○	
기원전 418년 라비키	Livius, 4.47; Diodorus, 13.7				○			○		
기원전 408년 카르벤통	Livius, 4.55	○								
기원전 406년 안크수르	Livius, 4.59					○		○		



전투 명	사 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405-396년 베이이	Livius, 4.61, 65.1, 7.2, 8.7, 12.4, 12.9-13, 14.6, 19.9-11, 21.10-17, 22.1-8; Plutarchos, <i>Camillus</i> 2.3-5, 5.3-5		○						○	
기원전 404년 아르테나	Livius, 4.61			○	○	○				
기원전 401-400년 안크수르	Livius, 5.12-13; Diodorus, 14.16									○
총수		2	2	1	5	6	0	5	2	1
비율(%)		15.4	15.4	7.7	38.5	46.2	0	38.5	15.4	7.7

아르테아 전투에서 안크수르 전투에 이르기까지 기원전 6-5세기에 총 13번의 공성전이 있었다. 이 중 포위망을 구축한 공성전은 5번이었다. 벨리트라이, 안티움, 라비키, 아르테나 전투는 포위망 구축 후 성벽 파괴와 성벽을 오르는 공격전으로 이어졌고, 피테나이 전투는 포위망과 땅굴 작전이 실행되었다. 5번의 전투 모두 포위망 구축 후 공격전이 이어진 것을 볼 때 포위망은 공격적인 전투를 하기 위한 예비작업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포위망 없이 바로 적의 성곽을 공격하는 적극적인 공격전을 펼친 것은 카메리아, 코리올리, 기원전 406년의 안크수르, 베이이, 기원전 401-400년의 안크루스 등 5번이었다. 이들 공격적인 공성전에서 주로 사용한 전술은 성벽을 파괴하는 동시에 사다리를 활용하여 적의 성벽을 올라간 것이었다. 따라서 기원전 6-5세기 전체 공성전 중 포위전만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공격전을 한 것은 10번(76.9%)이었다. 이를 볼 때 이 시기의 공성전이 공격전 위주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공성전에서 사다리 공격 외에 더 다양한 장치들이 보이는 것은

기원전 4세기였다. 리비우스(Titus Livius)가 포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기원전 386년 안티움을 포위하고자 할 때였다. 카밀루스는 “비틀림 포와 기계와 같은 큰 장비들(*magno apparatu, tormentis machinisque*)”이 없어서 볼스키인의 수도인 이 도시를 장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비틀림 포와 기계”라는 표현은 포와 기계가 다른 종류인 듯 보인다. 하지만 “과성퇴를 제외한 기계들”이라는 표현에서 과성퇴는 공성 기계에 포함되는 데도, “과성퇴와 다른 기계들”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sup>12)</sup> 따라서 포와 기계라는 표현은 포와 기계가 다른 종류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 나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오도루스의 주장에 따르면, 투석기가 발명된 것은 기원전 399년이었다. 시라쿠사이(Syracusae)의 디오니시우스 1세(Dionysius I)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준비할 때 무기 작업장에서 투석기가 발명되었다. 당시 모든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숙련 노동자들이 모여 최상의 무기를 제조하려고 경쟁한 결과 나온 것이었다. 로마가 시라쿠사이로부터 과성퇴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포의 존재 또한 시라쿠사이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sup>13)</sup> 하지만 로마가 포 자체를 제조하거나 상용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로마가 포를 사용한 기록이 기원전 3세기 1차 포에니 전쟁 때 처음 나오기 때문이다.<sup>14)</sup>

리비우스가 공성 장비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기원전 335년 칼레스(Cales) 전투에서였다. 이 전투에서 병사들은 사다리로 성벽을 올라가고자 했다. 하지만 로마군 지휘관인 코르부스(Marcus Valerius Corvus)는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보다 노동하

12) Livius, *Ab Urbe Condita* 6.9; Zosimus, *Historia Nova* 1.70, 2.23-26, 3.17-18; Ammianus, *Res Gestae* 20.11, 24.2.

13)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14.41-42, 23.9.

14)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24.1; Polybius, *Historiae* 1.17-19, 1.42.

는 것이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로마군은 공성로(*agger*)를 건설하고, 보호용 이동로(*vineae*)를 만들고, 공성탑(*turris*)을 성벽 가까이에 뒀다.<sup>15)</sup> 공성로는 파성되, 비틀림 포, 공성탑과 같은 공성 기계들과 병사들을 성벽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경사로를 말한다. 보호용 이동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면서 아군의 활동력을 높여주는 통행로이다. 공성탑은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성벽을 넘어갈 만큼의 높이를 가진 움직이는 탑을 말한다. 보호용 이동로나 공성탑 모두 곁에는 적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점토나 젖은 동물 가죽으로 되어 있다.<sup>16)</sup>

사가들은 피테나이 전투와 베이이 전투를 치른 기원전 5세기에 공성로나 토루가 도입된 것으로 기록하지만,<sup>17)</sup> 이는 시대착오적인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 병사들을 끌어올리기에는 사다리로 충분하고, 공성탑과 같은 공성 기계를 끌어 올릴 때 비로소 공성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즉 공성탑이 도입된 시기, 이로 인해 이를 성벽까지 끌어 올릴 장치로서의 공성로 건설이 필요하게 된 것은 기원전 4세기일 것이다. 이를 볼 때 공성탑을 활용하기 시작한 기원전 4세기는 포위망 건설과 사다리 공격에 그쳤던 기원전 5세기보다 공성전의 기술이 더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4세기 공성전에서 사용된 전술은 <표 2>와 같다.

15) Livius, *Ab Urbe Condita* 8.16.

16) G. Davies, *Roman Siege Works*, 97-100; W. Gurstelle, *The Art of the Catapult: Build Greek Ballistae, Roman Onagers, English Trebuchets, and More Ancient Artillery*, Chicago: Chicago Review Press, 2004, 12.

17) Dionysius of Halicarnassus, *Antiquitates Romanae* 5.59; Livius, *Ab Urbe Condita* 5.7, 6.8.

<표 2> 기원전 4세기 사용된 전술

전투 명	사 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394년 팔레라이	Livius, 5.26-27; Plutarchos, <i>Camillus</i> 9-10		○							
기원전 389년 수트리움	Livius, 6.3; Plutachos, <i>Camillus</i> 34-35; Diodorus, 14.117		○				○			
기원전 388년 코르투오사	Livius, 6.4						○			
기원전 388년 콘테네브라	Livius, 6.4						○			
기원전 386년 사트리쿰	Livius, 6.8	○								
기원전 386년 수트리움	Livius, 6.9					○	○			
기원전 386년 네페테	Livius, 6.9-10					○		○		
기원전 377년 안티움	Livius, 6.32	○								
기원전 377년 투스쿨룸	Livius, 6.33						○	○		
기원전 358년 프리베르눔	Livius, 7.16		○							
기원전 346년 사트리쿰	Livius, 7.27							○		
기원전 335년 칼레스	Livius, 8.16					○				
기원전 326년 팔라이폴리스	Livius, 8.25					○				
기원전 320년 루케리아	Livius, 9.13-15; Diodorus, 8.36	○								
기원전 316-315년 사티쿨라	Livius, 9.21-22	○								
기원전 314 소라	Livius, 9.23-24					○				
기원전 300-299년 네퀴눔	Livius, 10.9-10					○				
총 수		4	3	4	2	4	1	3	0	0
비율(%)		23.5	17.7	23.5	11.8	23.5	5.9	17.7	0	0

기원전 394년의 팔레리이(Falerii) 전투부터 기원전 300-299년에 있었던 네퀴눔(Nequinum) 전투까지 기원전 4세기에 벌어진 공성전은 총 17번이었다. 이 중 포위망을 건설한 것은 기원전 386년의 수트리움(Sutrium) 전투와 네페테(Nepete) 전투 2번(11.8%)뿐이었다. 수트리움 전투에서는 말뚝으로 포위망을 구축하고, 토루나 다른 공성 작업을 준비하다 결국 사다리롤 올라가 적의 성을 장악했다. 네페테 전투에서도 해자를 파서 포위하다 사다리롤 올라가 첫 번째 공격에서 승리했다. 포위전만 한 전투는 한 건도 없었다. 이를 볼 때 기원전 4세기에 포위망 건설은 공격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포위망을 구축하지 않고 성벽을 파괴하고, 사다리를 활용하여 적의 성벽에 오르는 직접적인 공격전은 기원전 389년의 수트리움, 코르투오사(Cortuosa), 콘테네브라(Contenebra), 투스쿨룸, 사트리쿰(Satricum) 등 5번의 전투였다. 총 17번의 공성전 중 포위망을 구축한 것을 포함하여 공격전을 펼친 것은 7번(41.2%)이었다. 기원전 6-5세기와 비교할 때 포위망 구축 비율은 유사하나 공격전의 비율은 이전 세기의 76.9%에 비해 낮아졌다. 그 원인은 로마군의 성향보다 적군의 역할에서 찾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 적의 항복이나 적의 배신으로 승리한 것이 7번(41.2%)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로마군이 직접적인 공격전에 들어갈 필요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로마군의 직접적인 공격 전술은 기원전 4세기에 존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3세기의 공성전에서 주목할 것은 파성퇴이다. 리비우스는 기원전 218년 사군툼(Saguntum)을 포위할 때 파성퇴를 사용했다고 기록하지만 폴리비우스(Polybius)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를 거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공성 기계에 속하는 파성퇴가 처음 사용된 것은 기원전 258년 카마리나(Camarina) 전투에서였다. 1차 포에니 전쟁기 로마는 시칠리아의 미티스트라투스(Mytistratus)를 공

격할 때 공성 기계들을 설치했다. 7개월 동안 공격했지만 도시 장악에는 실패했다. 후에 미티스트라투스를 세 번째 공격하여 장악한 다음, 카마리나도 점령했다. 로마군은 “성벽에 구멍을 뚫어” 카마리나를 점령했다. 성벽에 구멍을 뚫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는 파성퇴를 사용했음을 의미한다.<sup>18)</sup>

기원전 3세기의 공성전에서 주목할 것은 250-241년 시칠리아 릴리바이움(Lilybaeum)을 둘러싼 전투이다. 카르타고인은 로마의 공성 기계들을 불태우고자 했는데, 이때 사용한 기계가 비틀림 포, 공성탑, 파성퇴였다. 강한 바람으로 기계들이 상당수 불타서 로마는 해자와 말뚝을 사용한 포위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폴리비우스와 디오도루스가 “돌을 던지는 장비”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투는 로마군이 포를 사용한 최초의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로마의 공성전에는 다양한 기계들이 사용되었던 것 같다. 기원전 213-212년 시라쿠사이 공성전에서 로마의 군사령관 클라우디우스(Claudius Pulcher)는 공성탑과 파성퇴를 포함하여 “도시를 공격하는 모든 장비(*omnis apparatus oppugnandarum urbium*)”를 성벽 가까이 배치했다. 시라쿠사이의 아르키메데스(Archimedes)도 “모든 종류의 비틀림 포(*genus omne tormentorum*)”를 배치했다.<sup>19)</sup> 카마리나 전투에서 파성퇴가, 릴리바이움에서 비틀림 포가 사용되었다. 직전 전투인 기원전 218년 아우세타니(Ausetani) 전투와 기원전 214년 카실리눔(Casilinum) 전투에서 보호용 이동로가 사용되었다.<sup>20)</sup> 이를 볼 때 이후 공성전에서 사용되던 모든 공성 기계들이 도입된 것은 기원전 3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공격전을 할 수

18) Livius, *Ab Urbe Condita* 21.7.5-6; Polybius, *Historiae* 1.24.12;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23.9.

19) Livius, *Ab Urbe Condita* 24.33-34, 25.23-31; Polybius, *Historiae* 8.3-7; Plutarchos, *Marcellus* 14-19; Frontinus, *Stratagemis* 3.3.

20) Livius, *Ab Urbe Condita* 21.61, 24.19.

있는 근거가 더 풍부해진 것이다.

기원전 3세기 공성전에서 사용된 전술은 <표 3>과 같다.

<표 3> 기원전 3세기 사용된 전술

전투 명	사 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296년 무르간티아	Livius, 10.17					○				
기원전 296년 로물레아	Livius, 10.17						○			
기원전 296년 페렌티눔	Livius, 10.17					○				
기원전 294년 페리트룸	Livius, 10.34		○							
기원전 294년 밀리오니아	Livius, 10.34					○				
기원전 293년 아퀼로니아	Livius, 10.41-42, 10.44		○							
기원전 293년 코미니움	Livius, 10.43-44					○	○	○		
기원전 293년 사이피눔	Livius, 10.45					○				
기원전 262-261년 아그리겐툼	Polybius, 1.17; Diodorus, 23.9; Zonaras, 8.10		○			○				
기원전 258년 미티스트라툼	Polybius, 1.24.11; Zonaras, 8.11		○							
기원전 258년 카마리나	Polybius, 1.24.12					○				
기원전 256년 아스피스	Polybius, 1.29; Zonaras, 8.12		○							
기원전 254년 파노르무스	Polybius, 1.38; Diodorus, 23.18					○				
기원전 253-252년 리파라	Polybius, 1.39; Zonaras, 8.14							○		

전투 명	사 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250-241년 릴리바이움	Polybius, 1.41, 1.52-55; Diodorus, 24.1; Zonaras, 8.15		○	○	○	○				
기원전 219년 디말룸	Polybius, 3.18					○				
기원전 218년 아타나그룸	Livius, 21.61		○		○					
기원전 218년 아우세타니	Livius, 21.61		○		○					
기원전 214년 카실리눔	Livius, 24.19						○			
기원전 214년 레온티니	Livius, 24.30; Plutarchos, <i>Marcellus</i> 14.1-2						○			
기원전 213-212년 시라쿠사이	Livius, 24-25; Polybius, 8.3; Plutarchos, <i>Marcellus</i> 14-19		○	○	○		○	○		
기원전 213년 아르피	Livius, 24.46						○	○		
기원전 209년 타렌툼	Livius, 27.15-16		○				○	○		
기원전 212-211년 카푸아	Livius, 25-26, Polybius, 9.3-5		○		○					
기원전 210년 안티키라	Livius, 26.26; Polybius, 9.39					○				
기원전 210년 카르타게나	Livius, 26.42-47; Polybius, 10.9-13						○	○		
기원전 208년 로크리	Livius, 27.25-28	○								
기원전 207년 오룬기스	Livius, 28.3				○		○	○		
기원전 207년 오레우스	Livius, 28.5					○				
기원전 206년 카스탁스	Livius, 28.19-20		○							
기원전 206년 일로우르케이아	Livius, 28.19-20; Zonaras, 9.10							○		
기원전 206년 아스타파	Livius, 28.22; Polybius, 11.24									
기원전 205년 로크리	Livius, 29.6							○		



전투 명	사 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204년 로카	Appianus, <i>Punica</i> 15		○					○		
기원전 204-203년 우티카	Appianus, <i>Punica</i> 16, 30; Livius, 29-30; Polybius, 14.2-10	○				○				
기원전 200년 칼키스	Livius, 31.23; Zonaras, 9.15						○	○		
총수		2	13	2	8	12	8	12	0	0
비율(%)		5.6	36.1	5.6	22.2	33.3	22.2	33.3	0	0

기원전 3세기 공성전의 총수는 36번이었다. 이 중 포위망 전술을 구사한 전투는 8번이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포위망만으로 승부를 본 것은 4번(11.1%)이었다. 아그리겐툼(Agrigentum), 아타나그룸(Atanagrum), 아우세타니, 카푸아 전투에서 적군은 로마군이 구축한 포위망에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껴 항복했다. 나머지 4번의 전투는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전으로 들어간 전투였다. 총 36번의 전투 중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한 것과 곧바로 공격전으로 들어간 전투를 모두 합치면 그 수는 25번(69.4%)에 달한다. 다양한 공성 장비가 도입된 만큼 공격전의 비율이 기원전 4세기보다 더 증가했고, 공격 방법도 더 파괴적이었다. 이는 파성퇴와 비틀림 포를 활용한 성벽 파괴 비율, 사다리와 공성탑을 활용한 등성의 비율이 이전 세기보다 더 늘어난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기원전 6-3세기 로마군이 치렀던 총 66번의 공성전 중에서 포위망을 구축한 전투는 15번이었다. 이 중 포위망을 구축하여 적의 항복을 유도한 전투는 4번(6.1%)에 불과했다. 포위망 구축 후 직접적인 공격전을 펼친 전투는 11번이었다. 직접적인 공격전에 곧바로 돌입한 전투는 31번이었다. 포위망을 구축하든, 곧바로 공격전을 펼쳤던 로마군이 공격전을 한 전투는 66번 중 42번(63.6%)에 달한다.

포위전 대 공격전의 비율이 6.1% 대 63.6%라는 말이 된다. 이를 볼 때 기원전 6-3세기까지 로마군 공성전의 전술은 공격전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공격전도 기존에는 사다리를 사용한 등성이나 땅굴을 활용했지만, 파성퇴, 공성탑, 비틀림 포, 보호용 이동로 등 다양한 공성 장비가 개발되면서 성벽 파괴력은 더 강해졌다. 따라서 이 시기 로마 공성전의 전술적 특징은 공성 장비를 활용한 공격전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3. 기원전 2-1세기 공성전의 형태 및 특징

기원전 2세기 로마군이 사용하는 공성 장비에 대해서는 기원전 199년 오레우스(Oreus) 전투에서 알 수 있다. 로마군의 지휘관인 아푸스티우스(Lucius Apustius)와 페르가몬의 아탈루스 1세(Attalus I)는 마케도니아의 오레우스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격했다. 이때 로마군은 “거북이 모양의 방어 장비와 보호용 이동로(*testudines et vineae*)”를 사용해 이동했고, 바다 쪽의 성벽에 파성퇴를 설치했다. 거북이 모양의 방어 장비는 널빤지를 지붕과 옆면에 붙이고 이동하는 도구이다. 안에 파성퇴가 설치되기도 했다.<sup>21)</sup> 아탈루스 1세는 “발리스타와 투석기, 그리고 다른 모든 종류의 비틀림 포(*ballistae catapultaeque et alium omne genus tormentorum*)”를 사용했다. 전투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자 로마군은 공성 작업(*opera*)을 할 일부 병력만 두고 철수했다. 일부 병력이 공격을 계속해 이틀 후 오레우스를 점령했다. 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그리스에서 받은 다양한 형태의 비틀림 포를 활용하여 공격전을 했다. 아푸

21)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25, 4.22.

스티우스와 아탈루스 1세가 공격보다 포위로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지만, 공격을 멈추지는 않았다.<sup>22)</sup>

기원전 189년의 암브라키아(Ambracia) 전투는 포위한 후 공격하는 로마군의 전형적인 공성전이었다. 로마군의 지휘관인 풀비우스(Marcus Fulvius Nobilior)는 주민들이 외부의 원조를 받지 못하도록 성벽과 해자로 포위했다. 그는 5개 부분으로 나누어 공성 장비를 배치한 후 파성퇴로 성벽을 공격했다. 암브라키아인이 불화살로 공격하자 로마군은 보호용 이동로로 방어하면서 땅굴을 뚫다. 적도 대응 땅굴을 파면서 15일 동안 전투한 후 로마군이 승리했다. 이 전투 또한 적을 외부와 단절시킬 수 있는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전에 들어간 사례이다.<sup>23)</sup>

로마군의 포위 전술의 대표로 꼽히는 것은 누만티아 전투이다. 스키피오와 그의 형 파비우스(Quintus Fabius Maximus)가 누만티아를 점령하는데 기원전 134년 8월 말부터 기원전 133년 8월 초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 로마군은 누만티아군이 던지는 창과 돌을 피하고자 누만티아의 성벽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브이(V)자 모양의 거대한 해자를 파고, 말뚝을 박았다. 로마군이 배후에서 공격을 받지 않도록 로마군 뒤에 제2의 해자와 말뚝을 뚫다. 이중 포위망의 길이는 총 9km, 넓이 2.47m, 높이 3.1m에 달했다. 30.8m마다 망루를 세웠는데, 그 수는 300개에 달했다. 투석기와 투석기에 장착하는 돌무더기를 망루마다 배치했다. 병사들은 망루에서 항상 누만티아인의 동태를 감시했다. 일부 누만티아인이 이웃 주민에게 원조를 요청하려고 밤에 사다리로 성벽을 넘으려 시도했지만, 스키피오에게 발각되어 무산되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누만티아인은 포위가 오래 지속될수록 굶주림에 지쳐갔다. 처음에는 동

22) Livius, *Ab Urbe Condita* 31.46.

23) Livius, *Ab Urbe Condita* 38.4-9, 39.4; Polybius, *Historiae* 21.27-28. Zonaras, *Epitome Historiarum* 9.21.

물을 잡아먹다가 이것도 바닥이 나자 시체, 병자, 약자를 먹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누만티아인은 하는 수 없이 굴복했다. 아피아누스(Appianus)는 누만티아 주변에 7개의 주둔지를 건설했다고 하고, 플로루스(Florus)는 4개의 주둔지를 건설했다고 한다.<sup>24)</sup> 포위망의 근거지가 되는 주둔지의 개수는 사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로마군이 완전 봉쇄 전술을 구사하여 승리한 것은 사실이다.

누만티아 전투처럼 완전 봉쇄 전술을 한 것이 로마군의 전형적인 공성전의 전술이었는지를 알기 위해 기원전 2세기의 공성전을 모두 분석해 보았다. <표 4>는 기원전 2세기 공성전의 전술을 분류한 것이다.

<표 4> 기원전 2세기 사용된 전술

전투 명	사 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199년 켈레르움	Livius, 31.40		○							
기원전 199년 안드로스	Livius, 31.45		○							
기원전 199년 오레우스	Livius, 31.46					○				
기원전 198년 카리스투스	Livius, 32.17		○							
기원전 198년 에레트리아	Livius, 32.16; Zonaras, 9.16					○		○		
기원전 198년 아트락스	Livius, 32.17	○				○				
기원전 198년 다울리스	Livius, 32.18						○			
기원전 198년 코린토스	Livius, 32.23; Zonaras, 9.16	○				○				
기원전 198년 엘라테아	Livius, 32.24					○		○		

24) Appianus, *Hispanica* 90-98; Florus, 1.34; Frontinus, *Stratagems* 2.8.7, 4.1.1, 7.27.

전투 명	사 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198년 엘라테아	Livius, 32.24					○		○		
기원전 197년 레우카스	Livius, 33.17			○		○			○	
기원전 195년 기테움	Livius, 34.29		○			○				
기원전 195년 스파르타	Livius, 34.38		○		○			○		
기원전 191년 헤라클레아	Livius, 36.22-24; Zonaras, 9.19					○		○		
기원전 191년 나우팍투스	Livius, 36.30-34; Plutarchos, <i>Flaminius</i> 15		○		○	○				
기원전 190년 라미아	Livius, 37.4				○	○		○		
기원전 190년 암피사	Livius, 37.5-7; Polybius, 21.4-5		○		○	○				
기원전 190년 포카이아	Livius, 37.32		○			○		○		
기원전 189년 암브라키아	Livius, 38.4-9; 39.4; Polybius, 21.27-28; Zonaras, 9.21		○		○				○	
기원전 179년 문다	Livius, 40.47							○		
기원전 179년 케르티마	Livius, 40.47		○			○				
기원전 179년 알케	Livius, 40.49		○			○				
기원전 177년 네삭티움	Livius, 41.11				○			○		
기원전 171년 할리아르투스	Livius, 42.56-63				○	○		○		
기원전 169년 헤라클레움	Livius, 44.9; Polybius, 28.11							○		
기원전 169년 멜리보이아	Livius, 44.13	○								
기원전 156-155년 델미니움	Appianus, <i>Illyricum</i> 11; Florus, 2.25; Zonaras, 9.25				○		○			
기원전 152년 네르토브리가	Appianus, <i>Hispanica</i> 48		○			○				
기원전 151년 카우카	Appianus, <i>Hispanica</i> 51-52		○							

전투 명	사 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151년 인테르카티아	Appianus, <i>Hispanica</i> 53-54		○		○	○				
기원전 149-146년 카르타고	Appianus, <i>Punica</i> 80-81, 93, 95-100, 113-114, 117-119, 121-133; Zonaras, 9.26-30				○	○		○		
기원전 148년 히파그레타	Appianus, <i>Punica</i> 110; Zonaras, 9.29	○								
기원전 142년 켄토브리가	Valerius Maximus, 5.15	○								
기원전 141-140년 누만티아	Appianus, <i>Hispanica</i> 76-79	○								
기원전 138년 누만티아	Frontinus, <i>Stratagem</i> s 3.17	○						○		
기원전 136년 라그니	Diodorus, 33.17							○		
기원전 136년 팔란티아	Appianus, <i>Hispanica</i> 80-83	○								
기원전 133년 누만티아	Appianus, <i>Hispanica</i> 90-98; Frontinus, <i>Stratagem</i> s 2.8, 4.1, 7.27		○		○					
기원전 109년 수톨	Sallustius, <i>Bellum</i> <i>Jugurthinum</i> 37-38				○					
기원전 109년 자마	Sallustius, <i>Bellum</i> <i>Jugurthinum</i> 56-61				○				○	
기원전 109년 바가	Sallustius, <i>Bellum</i> <i>Jugurthinum</i> 66-69						○			
기원전 108년 탈라	Sallustius, <i>Bellum</i> <i>Jugurthinum</i> 75-76				○	○				
기원전 107년 카프사	Sallustius, <i>Bellum</i> <i>Jugurthinum</i> 91						○			
기원전 106년 몰루카	Sallustius, <i>Bellum</i> <i>Jugurthinum</i> 92-94						○			
총수		8	15	1	14	19	5	13	3	0
비율(%)		18.6	34.9	2.3	32.6	44.2	11.6	30.2	7.0	0

기원전 2세기에는 총 43번의 공성전이 있었다. 이 중 포위망 전술을 구사한 전투는 14번이었다. 이 중 포위망만 구축한 전투는 2번(4.7%)뿐이었다. 누만티아 전투와 기원전 109년의 수톨(Suthul)

전투가 그것이다. 수틀 전투에서 로마군 지휘관인 알비누스(Aulus Postumius Albinus)는 유구르타의 거점인 수틀에 주둔지를 건설했다. 수틀은 높지로 둘러싸인 언덕 지형이어서 방어하기 용이한 지역이었다. 로마군은 적이 강하게 방어하고 날씨조차 나빴지만, 보호용 이동로로 전진하면서 공성로를 건설했다. 유구르타는 항복하기 위한 협상 조건을 찾는 듯 보이면서도 로마군 보조군을 공격했다. 또 밤에는 로마군 주둔지를 공격해서 로마군은 할 수 없이 가까운 언덕으로 도망갔다. 아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알비누스는 조건 없는 철수에 동의했다. 로마군은 포위망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지만, 적의 공격에 제대로 된 포위망을 건설하지 못하고 항복했다.<sup>25)</sup>

분류에서 애매한 것은 기원전 195년의 스파르타(Sparta)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플라미니누스(Titus Flamininus)는 도시 주변에 포위망을 구축한 후 사다리와 다른 장비를 갖추었다. 로마군은 도시로 침입하기 위해 귀갑 대형을 펼쳐 적의 지붕 꼭대기에서 날아오는 돌이나 지붕 조각을 피했다. 스파르타인이 성벽 가까이 있는 건물들을 불사름으로써 로마군은 철수했다. 3일 후 로마군은 탈출로를 막기 위해 공성 장비들을 사용하여 다시 공격했다. 스파르타의 나비스(Nabis) 왕은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 이 전투에서 로마군이 귀갑 대형으로 적의 공격을 막은 것과 탈출로를 막기 위해 공성 장비를 사용한 것은 모두 포위 전술로 볼 수 있다. 탈출로에 대한 공격은 포위망을 뚫으려는 적을 막는 것이지 적의 성벽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플라미니누스는 자연적으로 방어가 되어 성벽이 없는 구역 3곳을 동시 공격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 이는 단순히 포위망을 구축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전으로 들어가는 전술을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Sallustius, *Jugurtha* 37-38.

43번의 공성전 중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전을 펼친 것은 12번 이었고, 공격전으로 곧바로 돌입한 것은 18번이었다. 총 43번의 전투 중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한 것과 곧바로 공격전으로 들어간 전투를 모두 합치면 그 수는 30번(69.8%)에 달한다. 파성퇴와 비틀림 포를 동원하여 성벽을 공격한 전투는 19번(44.2%)이었다. 사다리와 공성탑, 귀갑 대형을 동원하여 적의 성벽에 오르는 등성은 13번(30.2%)이었다. 기원전 3세기의 등성이 33.3%인 것과 비교해 비슷한 수치이다. 성벽 파괴와 등성이 이전 세기와 유사하게 파괴적인 공격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누만티아 전투와 같은 포위망을 구축하는 전술은 기원전 2세기 로마군의 전형적인 공성전 전술이 아니었다. 이때도 로마군은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했다.

기원전 1세기에 있었던 총 58번의 공성전을 분석한 것은 <표 5>와 같다.

<표 5> 기원전 1세기 사용된 전술

전투 명	사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90-89년 아스쿨룸	Appianus, <i>Bellum Civile</i> 1.48; Florus 2.6		○		○					
기원전 88년 아이클라눔	Appianus, <i>Bellum Civile</i> 1.51		○			○			○	
기원전 87-86년 피라이우스	Appianus, <i>Mithridates</i> 30-37, 40-41; Plutarchos, <i>Sulla</i> 12-14					○			○	
기원전 87-86년 아테네	Appianus, <i>Mithridates</i> 30, 34-35, 38-39; Plutarchos, <i>Sulla</i> 12-13				○		○			
기원전 82년 프라이네스테	Appianus, <i>Bellum Civile</i> 1.87-94; Plutarchos, <i>Sulla</i> 29-32		○		○					
기원전 79년 란고브리가	Plutarchos, <i>Sertorius</i> 13	○			○					
기원전 75년 이사우라 베투스	Sallustius, <i>Historiae</i> 2		○		○					



전투 명	사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72년 테미스키라	Appianus, <i>Mithridates</i> 78; Plutarchos, <i>Lucullus</i> 14		○			○			○	
기원전 72-71년 헤라클레아 폰티카	Jacoby, <i>Die Fragmente der Griechischer Historiker</i> , no. 434			○	○		○	○		
기원전 72-71년 아미수스	Appianus, <i>Mithridates</i> 78, 73; Plutarchos, <i>Lucullus</i> 14-15, 19							○		
기원전 70년 시노페	Appianus, <i>Mithridates</i> 83; Plutarchos, <i>Lucullus</i> 23	○								
기원전 69년 티그라노케르타	Appianus, <i>Mithridates</i> 84, 86; Plutarchos, <i>Lucullus</i> 26, 29			○	○					○
기원전 68년 니시비스	Dio, 36.6; Plutarchos, <i>Lucullus</i> 32					○		○		
기원전 63년 예루살렘	Josephus, <i>Bellum Judaicum</i> 1.141-154; Dio, 27.16					○				
기원전 61년 솔로니움	Dio, 37.48					○				
기원전 57년 노비오두눔	Caesar, <i>Bellum Gallicum</i> 2.12-13					○				
기원전 57년 아투아투키	Caesar, <i>Bellum Gallicum</i> 2.30-33					○	○	○		
기원전 57년 알렉산드리온	Josephus, <i>Bellum Judaicum</i> 1.160-168		○							
기원전 56년 베네티	Caesar, <i>Bellum Gallicum</i> 3.12	○				○				
기원전 56년 소티아테스	Caesar, <i>Bellum Gallicum</i> 3.21-22		○			○				
기원전 54년 제노도티움	Plutarchos, <i>Crassus</i> 17					○				
기원전 52년 벨라우노두눔	Caesar, <i>Bellum Gallicum</i> 7.11		○		○					
기원전 52년 케나블	Caesar, <i>Bellum Gallicum</i> 7.11						○			
기원전 52년 아마리콤	Caesar, <i>Bellum Gallicum</i> 7.17-32					○				
기원전 52년 게르고비아	Caesar, <i>Bellum Gallicum</i> 7.36-53	○								
기원전 52년 알레시아	Caesar, <i>Bellum Gallicum</i> 7.69-84; Dio, 40.39-40		○		○					
기원전 51년 옥셀로두눔	Hirtius, <i>Bellum Gallicum</i> 8.33-44		○		○	○			○	

전투 명	사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51년 핀데니수스	Cicero, <i>Ad Familiares</i> 2.10-15		○		○	○				
기원전 49년 코르피니움	Caesar, <i>Bellum Civile</i> 1.16-23			○	○	○				
기원전 49년 브룬디시움	Caesar, <i>Bellum Civile</i> 1.25-28	○			○					
기원전 49년 마실리아	Caesar, <i>Bellum Civile</i> 1.35-36		○			○				
기원전 49년 우티카	Caesar, <i>Bellum Civile</i> 2.24-37	○			○					
기원전 48년 살로나이	Caesar, <i>Bellum Civile</i> 3.9	○			○					
기원전 48년 오리쿰	Caesar, <i>Bellum Civile</i> 3.39-40							○		
기원전 48년 디라키움	Caesar, <i>Bellum Civile</i> 3.41-73	○			○					
기원전 48년 고평	Caesar, <i>Bellum Civile</i> 3.80							○		
기원전 48년 알렉산드리아	Caesar, <i>Bellum Civile</i> 3.111-112		○							
기원전 47년 올리아	Caesar, <i>Bellum Alexandrinum</i> 61-63	○			○					
기원전 46년 탐수스	Caesar, <i>Bellum Africanum</i> 79-86		○		○					
기원전 45년 올리아	Caesar, <i>Bellum Hispaniense</i> 3-4	○			○					
기원전 45년 아테구아	Caesar, <i>Bellum Hispaniense</i> 6-19				○	○				
기원전 44-43년 무티나	Appianus, <i>Bellum Civile</i> 3.49-72	○			○					
기원전 43년 스미르나	Appianus, <i>Bellum Civile</i> 3.26							○		
기원전 43년 라오디케아	Appianus, <i>Bellum Civile</i> 4.60-62				○	○				
기원전 42년 로도스	Appianus, <i>Bellum Civile</i> 4.72-73							○		
기원전 42년 크산투스	Appianus, <i>Bellum Civile</i> 4.76-80					○	○			
기원전 41-40년 페루시아	Appianus, <i>Bellum Civile</i> 4.32-38, 5.46-49		○		○					
기원전 40년 브룬디시움	Appianus, <i>Bellum Civile</i> 5.56-59	○			○					

전투 명	사료	공성 포기	적의 항복	적의 배신	포위 망	성벽 파괴	성문 개방	등성	땅굴	계략
기원전 38년 사모사타	Plutarchos, <i>Antonius</i> 34; Dio, 49.20-22				○					
기원전 38년 아라두스	Dio, 49.22		○		○					
기원전 37년 예루살렘	Dio, 49.22; Josephus, <i>Bellum Judaicum</i> 1.343-357					○		○		
기원전 36년 프라스파	Plutarchos, <i>Antonius</i> 38; Dio, 49.25	○				○				
기원전 35년 메톨룸	Dio, 49.35		○			○				
기원전 35년 세게스타	Appianus, <i>Illyricum</i> 23-24				○	○				
기원전 35년 시스키아	Dio, 49.37									
기원전 34년 프로모나	Appianus, <i>Illyricum</i> 25-26		○		○		○			
기원전 29년 게누클라	Dio, 51.26					○				
기원전 26년 몬스 메둘리우스	Florus, 2.33				○		○			
총수		13	18	3	31	23	6	9	5	0
비율(%)		22.4	31.0	5.2	53.5	39.7	10.4	15.5	8.6	0

기원전 1세기의 공성전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포위망을 구축한 사례가 총 58번의 공성전 중 31번(53.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중 포위망만 구축한 것은 19번(32.8%)이었고,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전을 펼친 것은 12번(20.7%)이었다.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전을 펼친 것과 곧바로 공격전에 들어간 것은 34번(58.6%)에 달한다. 공격전의 비율은 이전 세기와 비교해 줄어들었고, 포위전을 한 비율이 늘어났다. 아마도 이전 세기 43번의 전투에서 58번의 전투로 전쟁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아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전술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 포위전은 전투하는 시간은 길지만 그만큼 아군의 피해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격적인 전술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지배적인 견해로서 검증할 것은 갈리아 전쟁에서 카이사르가 포

위전을 선호했느냐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카이사르의 포위망 전술이 로마군 공성전의 특징으로 남았다고 보았다.<sup>26)</sup> 그 진위는 전체 공성전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카이사르 시기에 있었던 공성전은 기원전 57년 노비오두눔(Noviodunum) 전투부터 기원전 45년 아테구아(Ategua) 전투까지 총 26번이었다. 이 중 카이사르가 지휘한 것은 총 17번이었다. 17번 중 포위전만 한 것은 기원전 56년 베네티(Veneti) 전투, 알레시아 전투, 기원전 49년 브룬디시움(Brundisium) 전투, 기원전 48년 디라키움(Dyrrachium) 전투, 기원전 46년 탑수스(Thapsus) 전투 등 5번(29.4%)뿐이었다. 반면 이 시기 카이사르가 아닌 다른 군사령관이 치른 9번의 전투 중 5번(55.6%)의 전투가 포위전만 한 것이다. 기원전 49년 우티카(Utica) 전투, 기원전 48년 살로나이(Saloniae) 전투와 오리쿰(Oricum) 전투, 기원전 47년과 45년의 울리아(Ulia) 전투가 그것이다. 이를 볼 때 포위망 구축이 카이사르의 전형적인 공성전 전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는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하거나 곧바로 공격하는 전술을 선호했다.

카이사르가 전체 비율에서는 공격 전술을 선호했지만, 그의 포위망의 정교함은 이전이나 이후와 비교해 뛰어났다. 누만티아의 포위망은 총 9km이고, 30.8m마다 총 300개의 망루를 세웠다. 기원전 41-40년의 페루시아 전투에서 포위망은 총 10.4km이고, 17.76m마다 총 1,500개의 망루를 세웠다. 누만티아보다 페루시아의 포위망이 더 길었고, 더 촘촘하게 망루가 세워졌다. 알레시아 전투에서는 적을 포위하는 내부 포위망(circumvallation)과 로마군의 배후

26) P.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New York: Brill Academic, 2012, 316; G. Webster,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240-254; L. Keppie, *The Making of the Roman Army from Republic to Empire*,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80-96.

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부 포위망(contravallation), 즉 이중 포위망(bicircumvallation)을 구축했다. 베르킨게토릭스를 도우려는 갈리아 원군이 로마군의 배후를 공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부 포위망의 길이는 16.28km, 외부 포위망의 길이는 20.72km였다. 망루는 23.68m 간격으로 세웠다. 누만티아 전투에서 이중포위망이 건설되었지만, 카이사르는 그보다 더 큰 포위망을 구축했고, 이것 외에 해자와 구덩이, 나무 덩불로 여러 겹의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정교함을 보였다.

지배적인 견해로서 검증할 두 번째 물음은 로마군이 공성을 중도에 포기했느냐는 것이다. 노소프(K. Nossov)는 공성전에서 “로마군 성공의 주요 비밀은 로마인의 유례없는 참을성, 극단적인 인내”라고 말했다. 코널리 또한 “로마군은 일단 시작하면 결코 공성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위당하는 자들은 승리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항복한다.”라고 주장했다.<sup>27)</sup> 하지만 실제 전투를 분석한 결과 로마군이 공성을 포기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다. 공성을 포기한 비율이 기원전 1세기에 13번(22.4%)의 전투에 달했다. 기원전 2세기에 8번(18.6%)의 전투에서 공성을 포기했다. 비율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공성을 포기한 이유는 적의 공격을 견디지 못해 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탈 전투처럼 아군의 피해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재빠른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기원전 79년 란고브리가(Langobriga) 전투, 기원전 70년 시노페(Sinope) 전투, 기원전 52년 게르고비아(Gergovia) 전투, 기원전 48년 디라키움 전투, 기원전 47년과 45년 울리아 전투, 기원전 44-43년 무티나 전투, 기원전 36년 프라스타(Praaspa) 전투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27) K. Nossov,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 a fully illustrated guide to siege weapons and tactics*, 49; P. Connolly, *Greece and Rome at War*, 290-293.

기원전 2-1세기 로마군이 치른 총 101번의 공성전을 분석한 결과 포위망을 구축한 것은 총 45번이었다. 이 중 포위전만 한 것은 21번(20.8%)이었다.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한 것과 곧바로 공격전에 돌입한 것은 64번(63.%)에 달했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2-1세기에 로마군은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했다. 기원전 2세기와 1세기를 구별해 보면 기원전 2세기에 포위전만 한 것은 2번(4.7%)뿐이었는데, 기원전 1세기에는 19번(32.8%)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카이사르가 알레시아 전투에서처럼 정교한 이중포위망을 구축했지만 실제로 그가 선호한 전술은 직접적인 공격전이었다는 것이다. 또 로마군이 극단적인 인내로 공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공성을 포기한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공성전에서 로마군의 전술적 특징은 즉각적인 공격 전술을 선호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포기도 빨랐다는 것이다.

#### 4. 맺음말

본 연구는 공화정기에 로마가 치른 총 167번의 공성전에서 포위망 전술과 직접적인 공격의 빈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기원전 6세기 로마군은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거나 통나무로 성문을 치는 단순한 형태의 공성전을 취했다. 기원전 5세기 포위망과 땅굴 전술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벽을 직접 공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기원전 6-5세기 총 13번의 공성전 중 포위전만 한 것은 없었다. 포위망을 구축하여 공격전을 한 전투가 5번, 곧바로 공격전에 돌입한 전투가 5번으로서 공격전을 한 것은 10번(76.9%)에 달한다.

기원전 4세기에 벌어진 공성전은 총 17번이었다. 이 중 포위망을

건설한 것은 2번뿐이었다. 이것도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전에 돌입했다. 포위전만 한 전투는 한 건도 없었다. 이를 볼 때 기원전 4세기에도 포위망 건설은 공격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기원전 3세기에 파성퇴, 비틀림 포가 사용되었다. 총 36번 중 포위망 건설만 구사한 전투는 4번(11.1%)이었다.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한 것과 곧바로 공격전으로 들어간 전투를 모두 합치면 그 수는 25번(69.4%)에 달한다.

기원전 2세기에는 총 43번의 공성전이 있었다. 이 중 포위망 전술을 구사한 전투는 14번이었다. 이 중 포위망만 구축한 전투는 2번(4.7%)뿐이었다.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한 것과 곧바로 공격전으로 들어간 전투를 모두 합치면 그 수는 30번(69.8%)에 달한다.

기원전 1세기의 공성전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포위망을 구축한 사례가 총 58번의 공성전 중 31번(53.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중 포위망만 구축한 것은 19번(32.8%)이었다. 전쟁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아군의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전술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전을 펼친 것은 12번(20.7%)이었다. 포위망을 구축한 후 공격전을 펼친 것과 곧바로 공격전에 들어간 것은 34번(58.6%)에 달한다. 카이사르가 알레시아 전투에서처럼 정교한 이중포위망을 구축했지만 실제로 그가 선호한 전술은 직접적인 공격전이었다. 실제로 공성을 포기한 사례도 많았다.

기원전 6-1세기까지 로마군이 공성전을 치른 총 167번의 전투를 분석한 결과 로마군은 지속해서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했다. 기원전 3세기 이후 공성 장비들이 발달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공성전을 펼쳤다. 기원전 1세기에 포위전이 늘었지만, 전체적인 비율은 공격전이 더 많았다. 카이사르도 포위망 구축보다는 공격 전술을 선호했다. 따라서 누만티아, 알레시아, 페루시아 전투에서 많은 병력을 동

원하여 포위망을 건설한 정교함이나 포위 기간을 볼 때 포위망을 구축하는 기술이 발전했지만, 포위망이 로마군 공성전의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투고일 : 2021. 3. 2, 심사수정일 : 2021. 5. 13, 게재확정일 : 2021. 5. 28.)

주제어 : 공성전, 포위망, 전술, 공성 기계, 누만티아 전투,  
알레시아 전투, 페루시아 전투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Appianus, *Bellum Civile*.

\_\_\_\_\_, *Hispanica*.

\_\_\_\_\_, *Punica*.

Caesar, *Bellum Gallicum*.

Cicero, *Ad Familiares*.

Dio, *Historia Romana*.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Dionysius of Halicarnassus, *Antiquitates Romanae*.

Frontinus, *Stratagemms*.

Josephus, *Bellum Judaicum*.

Livius, *Ab Urbe Condita*.

Plutarchos, *Camillus*.

Polybius, *Historiae*.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Zonaras, *Epitome Historiarum*.

### 2. 2차 사료

Brice, L. L., *Warfare in the Roman Republic: From the Etruscan Wars to the Battle of Actium*, Santa Barbara: ABC-CLIO, 2014.

Campbell, B., *Siege Warfare in the Roman World 146 BC-AD 378*, Oxford: Osprey Publishing, 2005.

Connolly, P., *Greece and Rome at War*, London: Macdonald, 1981.

Davies, G., *Roman Siege Works*, Stroud: Tempus, 2006.

Dyck, L. H., *The Roman Barbarian Wars: The Era of Roman Conquest*, Barnsley: Pen & Sword Books, 2016.

- Feugere, M., *Weapons of the Romans*, Stroud: Tempus, 2002.
- Goldsworthy, A., *Roman Warfare*, New York: Basic Books, 2019.
- ., *The Complete Roman Army*, London: Thames & Hudson Ltd, 2003.
- Gurstelle, W., *The Art of the Catapult: Build Greek Ballistae, Roman Onagers, English Trebuchets, and More Ancient Artillery*, Chicago: Chicago Review Press, 2004.
- Kromayer, J. & Veith, G., eds., *Heerwesen und Kriegführung der Griechen und Römer*,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28.
- Levithan, J., *Roman Siege Warfare*, Ann Arbor: The University Michigan Press, 2013.
- Mackay, C. S., *Ancient Rome: A Military and Politic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Nossov, K., *Ancient and medieval siege weapons : a fully illustrated guide to siege weapons and tactics*, Connecticut: The Lyons Press, 2005.
- Penrose, J., ed., *Rome and her Enemies*, Oxford: Osprey Publishing, 2008.
- Phang, S. E., *Roman Military Service: Ideologies of Discipline in the Late Republic and Early Princip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Roth, J. P.,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264 B.C. –A.D. 235)*, Leiden: Brill, 1999.
- Southern, P., *The Roman Army: A Social and Institutional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http://dx.doi.org/10.1353/jmh.2007.0012>
- Webster, G.,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siege warfare by the time period of the Roman Republic

Bae, Eun-suk

This study attempts to study the frequency of siege tactics and direct attacks in a total of 167 battles carried out by Roman army during the Republican period. Of the 13 battles in the 6th–5th centuries BC, none of the encirclement battles were conducted alone. Out of 10 battles, 5 battles were conducted by encirclement, the rest ones, 5 battles were in the form of direct attack immediately. There were a total of 17 battles that took place in the 4th century BC. Only 2 battles of them had built an encircling net. After establishing a siege, After establishing a siege network, it also entered the offensive battle. There was not a single battle that was just an encircling battle. Out of a total of 36 battles in the 3rd century BC, 8 battles used the encircling tactics.

In the 2nd century BC, there were a total of 43 battles. Among them, 14 battles were carried out using the encircling tactics. There were only 2(4.7%) battles that built the encircling net. What stands out in siege wars of the 1st century BC is that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siege network was established was 31(53.5%) out of 58 battles. Of these, 19(32.8%) battles formed only an encircling net, and 12(20.7%) battles attacked after establishing the siege network. Overall, however, aggressive tactics remained the same. After establishing the siege, the attack battles and the immediate attack battles amounted to 34(58.6%) battles.

What is notable in the siege of the 1st century BC is that 31(53.5%) battles of the 58 battles were launched. Among them, 19(32.8%) battles were made a formation just for the encircling net, and 12(20.7%) battles were engaged in offensive battles after establishing siege networks. After establishing

the siege network, 34(58.6%) battles were immediately launched.

Analyzing a total of 167 battles fought by the Romans until the 6th–1st century BC, the Romans continued to favor aggressive tactics. Since the 3rd century BC, as siege equipment developed, more active siege wars were carried out. Siege warfare increased in the first century BC, but the overall rate was more offensive warfare. Therefore, in the battles of Numantia, Alesia, and Perusia, the sophistication of constructing the siege network by mobilizing a large number of troops and the technique of constructing the encircling net were advanced, but the encircling tactics was not a typical tactics of the Roman army.

Keywords : siege, encircling net, tactics, siege machine, battle of Numantia, battle of Alesia, battle of Perusia